

이인기 원장과 함께하는 실전 수의치과(37)

치과방사선 촬영시 방사선 노출 안되는 법

이 인 기
일산튼튼동물병원 원장
medivetmen@hanmail.net



- Q. 재작년에 원장님 수의치과 베이직 세미나를 수강했던 ***원장입니다.

세미나 수강 후에 치과방사선의 중요성을 느껴서, 치과방사선 장비를 셋팅해서 치과진료를 하다 보니, 확실히 치과 방사선을 보여주면서 보호자에게 설명하기도 좋고, 순응도도 높아져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방사선을 촬영하는 것은 좋은데, 촬영 횟수가 많아질수록 걱정이 생겼습니다.

일반방사선은 납옷을 입고 촬영하면 괜찮은데, 치과방사선의 경우 오랄센서를 개나 고양이의 구강 안에 넣고, 오랄센서를 손으로 잡아주다보니, 자연히 오랄센서를 잡은 손이 치과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반방사선은 많이 촬영해야 복부, 흉부 4장인데 비해 치과방사선은 최소한 한번 촬영시에 10장 이상 촬영하게 되고, 아직도 치과방사선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한 장의 제대로 된 치과방사선을 얻기 위해서는 몇 장씩 촬영하다보니 방사선에 노출된 손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납장갑을 끼고서 오랄센서를 잡아보았는데, 납장갑을 손에 끼고 오랄센서를 잡기도 쉽지도 않고, 고양이와 개의 구강 안에 넣기가 불가능해서, 이

원장님 병원은 저희보다 훨씬 치과방사선 촬영이 많을 텐데, 이원장님께서는 오랄센서를 잡은 손에 피폭되는 방사선은 어떻게 하시는지,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원장님.

인의에서는 치과방사선 촬영시 환자가 오랄센서를 잡고, 촬영자는 바깥에 나가서 촬영하다보니 방사선에 피폭되는 일이 있는데, 저희 수의분야에서는 치과방사선 촬영시 강아지나 고양이가 자기 손으로 오랄센서를 구강 안에 넣을 수가 없으므로 수의사나 테크니션들이 오랄센서를 손으로 잡고 구강 안에 고정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보니 아무래도 오랄센서를 잡은 손이 방사선이 직접 노출되어 원장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과방사선을 촬영안하고 진단을 내릴 수도 없는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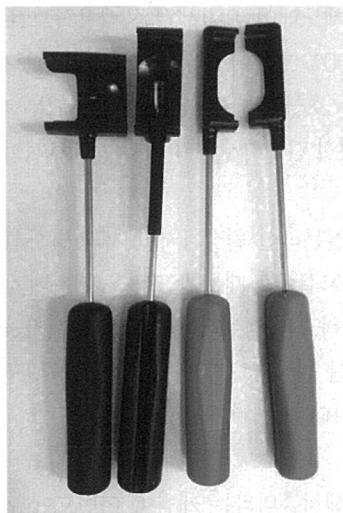
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병원에서 치과케이스가 더 많을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치과방사선의 촬영횟수도 많습니다.

그럼 저희병원에서는 어떻게 오랄센서를 잡은 손이 방사선에 노출이 안되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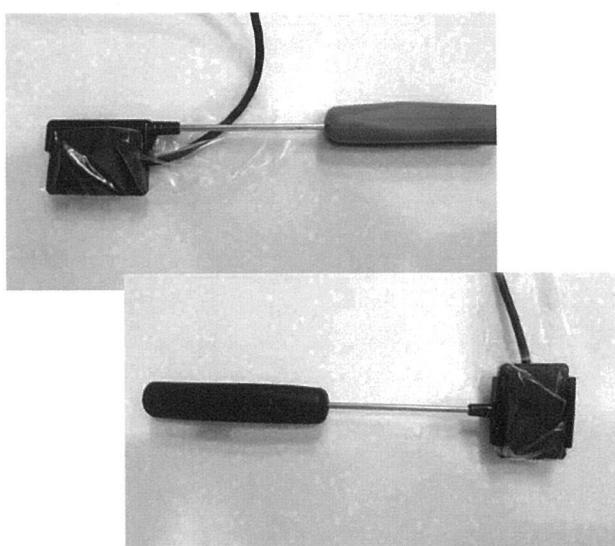
우선 오랄센서를 잡아주는 것을 Sensor Holder하고 하는데, 대표적인 2개회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동물용으로는 어떤 것이 맞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Tooth Brush

아래 사진은 Kodak의 Tooth Brush입니다. 칫솔같이 생겨서 이름이 Tooth Brush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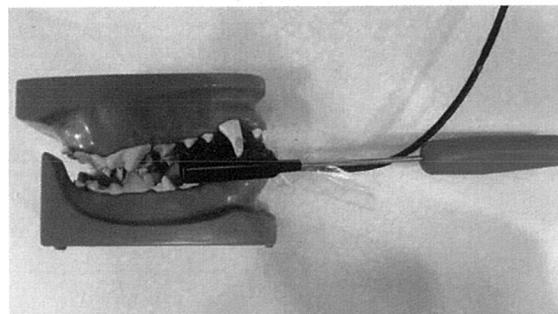


Tooth Brush 장착법은 아래 사진처럼 칫솔모 부분의 훌더에 오랄센서를 끼우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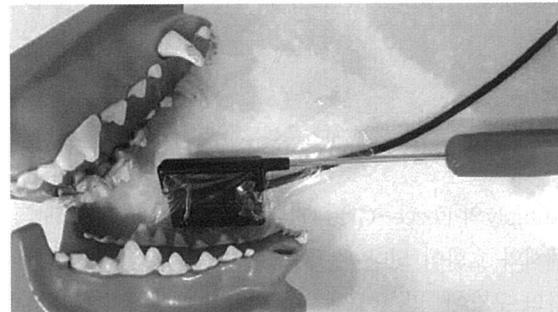


아래 사진처럼 Tooth Brush를 사용하면 오랄센서를 직접 손에 잡지 않아서, 방사선에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적색과 연두색 Tooth Brush는 주로 구치용으로 좌측 상악과 하악을 활동시에는 반대로 좌측 상악은 연두색 Tooth Brush를 사용하면 되고, 좌측 하악은 적색 Tooth Brush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측상악 – 적색 Tooth Bru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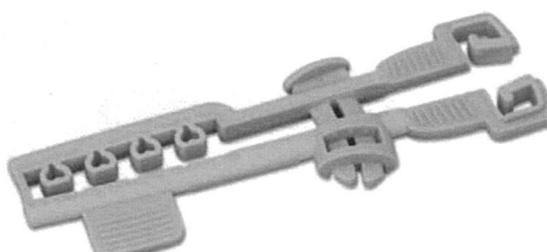
우측하악 – 연두색 Tooth Bru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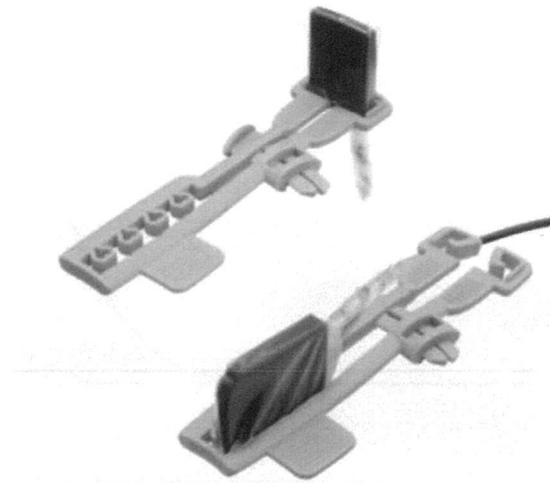
좌측 상악의 경우는 반대의 색으로 오랄센서를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Kodak의 Tooth Brush는 모든 오랄센서에 다 맞는 것은 아니고, Kodak에서 제작했으므로 Kodak 오랄센서는 맞고 제노레이 오랄센서에도 맞습니다. 이외에 다른 오랄센서는 규격에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Eezee-Grip Digital Sensor Holder

Dentsply의 Eezee-Grip Digital Sensor Holder입니다. 모양이 마치 로봇팔같이 되어 있는데, Dentsply의





Eezee-Grip Digital Sensor Holder는 Kodak의 Tooth Brush와 달리 모든 오랄센서와 호환이 되는 점이 장점입니다.

추천

Dentsply의 Eezee-Grip Digital Sensor Holder는 모든 오랄센서와 호환이 되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적으로 사람의 구강에 맞추어 제작이 되어서 대형견외에는 사용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Kodak의 Tooth Brush는 원래 코닥 오랄센서만을 위해서 제작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구조로 제작되었으나 얇기 때문에 동물용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에 소개한 것 외에 다른 오랄센서홀더도 있지만, 동물용으로 적합한것은 Kodak의 Tooth Brush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Kodak의 Tooth Brush는 오랄센서를 부착하는 부분이 정형화되어있어 코닥의 센서와 크기가 같아야 맞는 단점이 있습니다(같은 호수라해도 회사마다 약간의 사이즈 크기가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제노레이 오랄센서를 사용하므로 제노레이 오랄센서와는 100% 호환이 되었습니다. 코닥과 제노레이의 오랄센서 외에는 호환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으므로 원장님들이 직접 사용하시기 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희병원도 질문하신 원장님처럼 치과 방사선 촬영시 방사선이 손에 노출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Kodak Tooth Brush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원장님도 답변을 보셨으면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홀더라는 개념이 이번호에 기술한 것처럼 방사선에 노출이 안되게 하는 개념도 있고, Positioner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Positioner는 방사선 촬영시 방사선이 잘나오게 하는 각도를 맞추어주는 것이므로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

